

돈키호테 시대의 나

교육의향



김명희
아동문학가

AI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과 살아남을 수 없는 직업을 선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글쓰기는 물론 작곡도 AI가 하는 시대이다. 얼마 전 그림책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이가 AI가 해준 개요를 가지고 왔다. 그 후 AI 그림책 만들기 수업에 참여했는데, AI가 목차는 물론이거니와 내용까지 정리해주고, 그것에 맞는 그림을 보내 주었다. 그 그림을 편집하여 직접 아마존에 등록하고 판매까지 직접 하게 했고, 수입금도 나왔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카페하는 사장님을 만났는데 카페에서 체험학습을 예전과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한다. 챗GPT를 이용해서 리스를 만들어 아이들이 직접 유튜브를 함으로써 체험을 하게 한다면 어떠하겠느냐는 것이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하는 말. "아이들 데리고 가겠는데요." 했다.

시대에 맞게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엄마들이 선택한 것이 다름 아닌 코딩을 가르치는 일이다. 코딩(Coding)은 컴퓨터나 사물에 명령을 내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문을 사용해 컴퓨터에 원하는 동작을 지시하면 그 질문을 받아 AI가 그 답을 보낸다.

이 시대의 키워드가 컴퓨터와 연관성

이 커서 가장 유망한 직업군으로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머가 꼽혔다. 코딩 관련 책도 쏟아져 나왔다. 코딩 학원도 생겨났다.

주변을 둘러보면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꽤 있다. 코딩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을 엄마 아빠가 직접 배워 아이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한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코딩을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가 큰 수입원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AI를 이해하고 코딩에 익숙해지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할 인재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하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원하는 인재로 완전히 달라질 것인가. 옛이야기 속에 도깨비방망이가 바로 오늘날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척척 내 앞에 배달이 된다.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면 피자가 눈앞에 있고,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면 치킨이 눈앞에 놓여 있다. 옛이야기 속의 도깨비방망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게임, 영화, 음악 같은 것도 입맛대로 원할 때마다 제공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직 서클에서 살아가고 있다.

매직 서클은 현실과 게임이 공존하는 시공간을 뜻한다. 메타버스에서 내 아바타가 게임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가 혼돈되는 세상이다.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원하는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다. 그곳에서는 성공도 할 수 있다. 현실의 나와 가상세계의 나와 혼재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춘 인재가 주목을 받게 될까? 바로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눈에 띄는 인재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이다.

기사 무용담에 흠뻑 빠져 스스로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붙인 뒤 늙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사서 고생하러 괜한 모험을 떠났던 그 돈키호테, 풍차를 거인이라고 생각하여 습격하고 가상의 공주를 만들어 그 공주를 찾아가 편지를 전해주려고 했던 그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다. 매직 서클 안에서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돈키호테는 상상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험을 떠나는 실천력이 있다. 머릿속에만 상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일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훨씬 압도적이다. 그러다가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완수한다. 지금까지의 공부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앞으로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교육이 매직 서클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까? 늘 연구한 결과, 돈키호테처럼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 상상력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이 미래 매직 서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황당무계함 속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 속에 있는 개인의 상상력이 시장에서 가장 큰 가치로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社說

광주FC 조롱한 중국 관중 엄중조치 해야

전두환 사진은 광주 모욕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7차전 산둥 타이산과 광주 FC 경기에서 현지 관중이 '전두환 사진'을 꺼내들었다. 이같은 도발은 스포츠 정신 훼손을 넘어 광주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모욕행위다. 광주 FC는 즉각 AFC(아시아축구연맹)에 강력 징계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산둥 구단 측은 공식 사과했다고 한다.

산둥 타이산은 지난 14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구단 성명을 냈고, '전두환 사진'으로 도발한 관중에 대한 홈경기 영구 관람 금지령을 내렸다. 산둥구단은 광주FC에도 사과 성명을 발송했다. 산둥 측은 "광주 구단과 광주 팬들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난 11일 경기에서 보여준 중국 일부 팬들의 행위는 경악스러울 정도다. 당시 일부 관중이 전두환 사진과 북한 김일성, 김정은의

사진 등을 꺼내들었다가 현지 경비에게 제지당했다. 전 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정권의 유혈 진압을 지시, 수많은 광주시민을 죽임으로 내몰았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 중 하나이며 광주 시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상처로 남아 있다. 김일성과 김정은은 사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를 만든 독재자들이다. 이런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응원 방식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악의적 조롱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광주FC의 강력한 대응은 정당하다. AFC와 국제 축구계도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스포츠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적 사건을 악용한 조롱과 비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AFC와 국제 축구계는 반드시 산둥 타이산 팬들의 도발에 상응하는 강력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엄격한 조치를 통해 향후 국제 경기에서 이러한 비열한 도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줄폐업 예사로 넘길 일 아니다

정부·정치권 민생회복 나서야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다. 인건비와 임대료, 재료비까지 안 오른 것이 없는 데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자 내기도 버겁다는 자영업자들. 다가오는 봄과 함께 어수선한 정국이 하루 빨리 안정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자영업자의 마음에 온기가 찾아오길 기대한다.

16일 통계청의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4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감소했다. '나홀로 사장'으로 버티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09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도 지난해 1조390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0억원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말 336만9000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도 1123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대출자

도 14만6000명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위기이면서 모두의 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지표는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기업들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 등에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탄핵정국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한동안 내수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다. 자영업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국가적 위기로 확대된다.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본인뿐 아니라 직원과 인근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이렇게 무너진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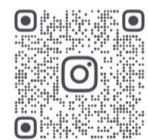
정부는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추스려야 한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데 먼저 나서야 한다. 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유불리를 따져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빈사상태의 민생경제를 수습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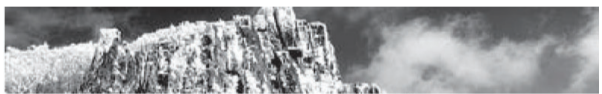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jinilbo.com



서석대



지난 주말, 광주 충장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는 금남로 3~4가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금남로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안정을 위한 것이었으며,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 만큼 탄핵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금남로 1~3가에서 제14차 광주시민총괄기대회를 개최하며 '맛볼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지지를 촉구하고 나선 이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 출신의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는 1961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의 재판을 취재하며 그가 엄청나게 사악한 인물이 아니라, 단순히 명령에 따라 행동한 '평범한 관료'였다는 점을 들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냈다.

한나 아렌트는 어떤 이가 주체적으로 사유하지 않을 때, 즉 비판적 사고 없이 체제나 권력의 명령을 따를 때 악은

소리소문없이 사회 전체에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악이 반드시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속에서 사고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렌트는 "사유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이 정말로 윤리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며 "아이히만은 주체적으로 사유하지 않았기에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집단 학살에 기여하며 "나는 법을 따랐고, 내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

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을 대하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태도를 계속해서 변화했다. 초반만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으나,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또 다시 특정 세력의 논리와 정치적 사건에 휩쓸려 주체적인 사유를 포기한 채 휩쓸리고 있다.

어떤 것이 정당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국가의 결정에 자신의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비판적 사고 없이 체제에 순응하는 또 다른 아돌프 아이히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inilbo.com m.ji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inilbo.com